

한국과 프로방스에서의 매미의 문화적 상징*

황혜영

(서원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과 프로방스에서의 매미의 문화적 상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미는 한국과 프로방스에서 각각 고유한 맥락 속에서 독자적인 스토리텔링을 형성하며 상징적 의미를 만들어 왔다. 한국에서는 매미가 예로부터 청렴한 선비정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조선시대에는 매미의 날개 모양을 임금이나 관료의 관모에 붙여 청백리(淸白吏) 정신을 상징화하였고, 문학과 예술을 통해 매미는 선비의 덕목과 고결함을 표현하는 주요 소재가 되었다. 이항, 이항, 홍대용과 이덕무 등 조선시대 시문들에서 매미가 선비의 청렴함과 학문적 이상을 상징하는 예들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인관, 정선과 심사정 등의 조선시대 그림에서도 매미는 단순한 자연물을 넘어 선비정신의 상징으로 묘사되었다.

프로방스에서 매미는 뜨거운 여름철의 자연현상을 대표하며 프로방스의 지복과 풍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프레데릭 미스트랄을 비롯한 프로방스 문인들은 이 지역 문화의 수호를 추구하며 매미를 프로방스 문화의 핵심 상징으로 삼았다. 또한 세라믹 작가 루이 시카르는 매미를 도자기 예술의 주요 소재로 활용하여 프로방스 문화와 정체성을 기념하는 상징물로 승화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프로방스 두 문화 속에서 형성된 매미의 고유한 문화적 상징을 살펴보고 그 상징이 문학과 예술을 통해 재해석되며 전승되는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문화적 상대성과 인문학적 상상력, 그리고 문화적 상징이 가지는 지속적인 영향력과 가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매미와 선비정신, 청백리, 프레데릭 미스트랄, 프로방스어, 루이 시카르, 매미 세라믹

* 본 연구는 2023년 한국프랑스문화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머리말

이 연구는 한국과 프로방스에서 매미의 문화적 상징에 대해 비교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매미가 청렴한 선비의 상징으로 간주되어왔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매미가 선비에 비유된 것은 중국 진나라 시인 육운(陸雲, 262-303)의 시에서 매미를 선비의 다섯 가지 덕을 갖춘 곤충으로 표현한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리학적 이념에 근간한 조선시대 관직에서는 매미의 날개 모양을 임금이나 관료들의 관모에 부착하여 청렴하고 미덕 있는 선비 상인 청백리(靑白離) 정신을 상징화했다. 연산군 때의 시인 이행(李荇, 1478~1534)은 군자의 성품을 매미의 이미지에 담아낸 시를 남겼다. 이황(李滉, 1502-1571)은 중국 송대 사상가 주자(朱子, 1130-1200)의 『주자대전朱子大全』 중 중요한 부분을 뽑아 『주서절요(朱書節要)』를 편찬하면서 매미 소리를 들으며 덕이 높은 벼를 떠올리는 주자의 짧은 편지글을 신는데, 이 책이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두루 읽히면서 매미가 선비를 상기시키는 매개로 함께 널리 알려지게 된다. 조선 후기 학자 유의건(柳宜健, 1687-1760)도 시에서 매미를 맑고 뜻 높은 선비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실학자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은 먼 곳에 있는 벼에 보내는 편지에서 매미 소리를 들으며 그 선비 벼를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고 있으며, 실학자 이덕무(李德懋, 1741-1793)는 매미의 맑고 깨끗한 품성을 몸에 지니고자 매미를 자신의 호로 삼기도 한다. 시문에서뿐만 아니라 김인관(金仁寬, 1636~1706)이나 정선(鄭勳, 1676~1759), 심사정(沈師正, 1707~1769) 등이 그린 조선시대 그림에서도 매미는 단순히 자연물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선비 정신의 표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매미는 전통적으로 선비 정신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프로방스에서 매미는 프로방스 지방의 뜨거운 여름 자연 현상을 대표하는 아이콘이자 지복과 행운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프로방스 지방에 전해오는 전설은 매미가 프로방스 지방의 풍부한 태양빛과 천혜

의 자연환경이 주는 다산과 행운을 상징하게 되는 과정을 들려준다. 프로방스의 자연과 문화를 문학작품에 담아내고 프로방스어의 보존을 위해 평생 헌신한 프로방스 출신 작가 프레데릭 미스트랄(Frédéric Mistral, 1830-1914)은 매미를 자신의 앙블렘으로 삼고 “태양이 나를 노래하게 한다.”라는 뜻의 프로방스어 문장 “Lou Souleu me fai canta.”을 자신의 신조로 삼는다. 미스트랄이 지역 문인들과 프로방스 언어와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 펠리브리지(Félibrige)에서도 매미는 주요한 앙블렘의 역할을 하며, 이 지역에 관련된 많은 문헌들에서도 매미는 친숙한 문화적 상징으로 자주 등장한다. 또한 세라믹 작가 루이 시카르(Louis Cicard, 1871-1946)는 1895년 올리브 나뭇가지 위에 앉은 세라믹 매미 기념품을 처음 만들고 매미가 앉은 올리브 가지에 미스트랄의 신조를 적어 그의 프로방스 어와 문화에 대한 보존과 옹호의 정신을 기념한다. 이후 세라믹 매미는 프로방스 문화와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기념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처럼 매미는 프로방스의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서 행복과 행운의 상징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프로방스 지방에서 각각 매미의 문화적 상징성이 글, 그림, 문화 상품 등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고 전수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한국에서의 매미의 문화적 상징 : 선비 정신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매미가 선비의 상징이 되어왔다. 매미는 조선시대 공직에서나 삶에서 청렴하고 깨끗한 생활을 한 공직자들에 부여된 가장 명예로운 칭호인 청백리의 상징으로 여겨졌다¹⁾. 조선시대 왕의 관

1) <실학박물관 경기청백리 특별전>(2016.05.23.-2016.09.18.) 전시 소개 글,

모인 익선관(翼善冠)²⁾이나 관료들의 관모에 매미의 날개를 붙여 관직에서 청백리 정신을 몸에 지니고 몸소 실천하도록 한 것에서도 매미가 표상하는 선비정신을 알 수 있다. 중국 진나라 시인 육운은 늦여름의 매미를 주제로 한 시 「한선부(寒蟬賦)」의 서문에서 “머리 위 갓끈 있으니 글을 깨쳤고(頭上有綏則其文也)/이슬을 먹고 사니 맑은 성품을 지녔고(含氣飲露則其清也)/곡식을 축내지 않으니 염치가 있고(黍稷不享則其廉也)/거처할 집을 짓지 않으니 검소하고(處不巢居則其儉也)/오갈 때를 지키니 신의가 있다(應候守常則其信也)”라고 하여 매미가 선비가 지닐 문청렴검신(文清廉儉信)의 다섯 가지 지극한 덕을 지닌 곤충(至德之蟲)으로 칭송하고 있다.

육운은 우선 매미의 생김새의 특징으로부터 선비의 덕을 유추하여 머리 아래로 내려온 대롱 모양을 선비의 갓끈이 턱 아래로 늘어진 모습에 비유하며 매미가 선비의 학문을 닦는 덕을 지닌 것으로 본다. 또한 시인은 매미가 나무 등걸에 붙어 이슬을 먹고 산다고 보고 맑은 성품을 지닌 것으로 해석하고, 매미가 메뚜기처럼 인간의 곡식을 축내지 않는 것에서 염치가 있다고 보았다. 시인은 또 매미가 거대한 집을 지어 자신을 과시하거나 사치를 부리지 않고 나무그늘에 기댈 뿐 집도 없이 여름을 나는 것에서 검소한 덕을 지닌 것으로 유추하였으며, 매미가 수년간 애벌레 상태로 지내다 성충이 된 뒤 한철 여름이 지나면 어김없이 떠나는 것에서 올 때와 갈 때를 어기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신의가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육운은 매미의 생김새와 생태적 특징에 대해 섬세하게 관찰한 것에 문학적 상상력을 결합하여 선비가 지닐 덕목을 유추하여 매미에게 선비의 이미지를 덧입힘으로써 매미를 선비의 상징으로 탈바꿈시킨다³⁾.

<https://silhak.ggcf.kr/exhibitions/18>

- 2) 익선관에서 ‘선’을 매미 날개 모양의 관이라는 뜻에서 매미 선(蟬)으로 쓰기도 한다.
- 3) 매미가 조선시대 선비의 상징이 된 기원이 진나라 육운의 시에서 유래하였듯이 매미의 선비 정신의 상징이 한국 문화에만 국한된 것이라기보다 동아시아 문화권

구양수(歐陽脩, 1007-1072)는 송나라 인종의 연호인 가우 원년(1056년) 여름 큰 비가 내려 왕명으로 자신이 예천궁에서 날씨가 개이기를 빌었는데, 그때 매미 소리를 듣고 느낀 바가 있어 지었다고 하는 「명선부(鳴蟬賦)」에서 매미 소리를 오묘한 음악의 경지로 높이고 있다. 구양수는 매미 소리를 묘사하며 “여기에 한 물건 있어 나무 끝에서 우는데,/ 맑은 바람 끌어들이며 긴 휘파람 불기도 하고,/가는 가지 끌어안고 긴 한숨짓기도 하네./멤멤 우는 소리는 피리와는 다르고,/맑은 소리 현악기와 같네./찢어지는 소리로 부르짖다가는 다시 흐느끼고,/처량하게 끊어질 듯 하다가도 다시 이어지네./외로운 운울 토하고 있어 음률 가늠하기 어렵지만/오음(五音)의 자연스러움 품고 있네./나는 그것이 어떤 물건인지 알지 못하거나/그 이름이 매미라네.(爰有一物하야, 鳴于樹顛하니, 引淸風以長嘯하고, 抱纖柯而永歎이라. 嘒嘒非管子요, 泠泠若絃이라. 裂方號而復咽하고, 淒欲斷而還連이라. 吐孤韻以難律이나, 含五音之自然이라. 吾不知其何物이러니, 其名曰蟬이라.)”(황건 2003:991-992)라고 하였다. 구양수는 이 시에서 매미를 특별히 선비의 상징으로 묘사하지는 않지만 매미 소리가 음악의 오음의 자연스러움을 품고 있다고 하였으며, 매미 소리에서 출발하여 차츰 만물의 울음으로 시론을 확장시켜 나가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울음으로 볼 수 있는 문장론으로까지 성찰을 확장시켜나간다.

이후 주자에 의해 매미 소리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주자는 동래(東萊) 여조겸(呂祖謙)에게 “며칠 사이 매미 소리가 더욱 맑습니다. 들을 때마다 높은 풍도를 그리워하지 않음이 없습니다(數日來, 蟬聲益淸. 每聽之, 未嘗不懷高風也)”(정민 2020)라는 17한자로 된 짧은 안부

에서 공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아시아 문화권으로 매미의 문화적 상징을 확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한국에서의 매미의 선비 문화의 상징에 국한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매미가 선비 정신의 상징이기만 한 것은 아니며, 의미 없이 시끄러운 공허한 말만 하는 관료들을 상징하기도 하며, 때로는 불로장생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미가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청렴한 선비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사용되어온 것에 주목해보고자 하였다.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에서 주자는 매미소리가 여조점의 군자의 덕을 상기시키는 매개로 표현하여 매미를 지극한 덕의 상징으로 만들어준다.

송으로부터 성리학을 받아들인 조선에서도 매미는 선비정신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1504년 갑자사화 때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의 복귀를 반대하다 충주에 유배되고, 이어 함안으로 옮겨졌다 1506년 거제도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던 시인 이행은 「매미(蟬)」 시에서 “너의 성품이 자못 고결하거니/누가 미천한 곤충이라 하리오./바람에 울자니 마음 유독 쓰리고/이슬만 먹고사니 배는 늘 주리네./사마귀의 도끼는 몰래 독을 품고/거미의 실은 포위 풀지 못하니/몸뚱이 가지면 참으로 누가 되건만/이 동물이야 본래 샅된 마음 없어라.(爾性頗高潔/誰言蟲類微/嘯風心獨苦/飲露腹長饑/蟪斧潛懷毒/蛛絲未解圍/有形真是累/此物本無機)”(정동화 2016)라고 하여 매미에 군자의 품성을 투영하고 있다.

이황이 주자의 핵심적인 사상을 요약하여 편찬한 『주서절요』에서 주자가 여조점에게 쓴 짧은 편지글을 넣은 것을 보고 남언경(南彦經, 1528~1594)이 왜 대수롭지 않은 혈후(歇後)한 구절을 선택했는지 묻자 퇴계는 “나는 평소 이러한 구절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녹음이 우거지고 매미소리가 귀에 가득 들려오면, 항상 두 분의 선생인 주자와 여동래(呂東萊)의 풍모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이황의 『주서절요』가 조선시대에 널리 읽히게 되면서 여름철 매미소리가 선비 정신과 군자 간의 사귀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로 알려지게 되었다(이상구 2023 참조).

여름 한철 매미소리는 자연의 일상적 소리지지만, 주자나 퇴계와 같은 선비들이 미학적으로 표현하고 다시 인용함으로써 윤리적인 차원으로 승화되어 매미소리를 듣는 청선(聽蟬)이 군자의 덕(德)과 연결되게 된다. 이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깊은 사색과 미적 감각으로 감상하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던 동아시아의 정신과 문화를 반영하기도 한다. 매미소리를 듣는 것은 더 높은 도덕적 가치와 연관되며, 선비들의 정신적 성숙과 군자의 덕을 상기시

키는 중요한 상징적 행위로 여겨졌다.

조선 후기 학자 유의건의 『화계집(花溪集)』 2권에 수록된 그의 시에서도 매미가 맑고 뜻 높은 선비의 상징이 되는 예를 볼 수 있다.

누각의 해가 낮아지는 게 확실하고 樓上分明日欲低
 정이 많은 산새가 사람 향해 우네 多情山鳥向人啼
 매미소리가 귀에 가득하니 맑음이 이와 같고 蟬聲滿耳清如許
 생각은 뛰어난 人德을 앙모하니 꿈이 미혹하지 말기를 懷仰高風
 夢不迷(조해훈 2017:45)

이 시는 유의건이 경주 안강읍 하곡리에 거주했던 정엽(鄭燁)이 옥산 서원에 있는 자신을 방문하고 하룻밤 머물고 돌아가자 그에 대한 아쉬움을 담아 쓴 시이다(조해훈 2017:45). 유의건의 시에서 매미는 선비정신을 상징하는 매개로 사용된다. 시에서 “매미소리가 귀에 가득하니 맑음이 이와 같고(蟬聲滿耳清如許)” 구절은 매미가 우는 소리를 단순히 자연의 소리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 욕망을 떨치고 청렴하게 살아가는 선비의 맑고 고결한 정신에 비유한 표현이다.

북학과 실학자인 홍대용은 1765년 36세 때 서장관이 된 숙부를 수행해 북경에 가서 중국의 선비들과 사귀고 조선에 돌아온 뒤 중국의 벗 반정균(潘庭筠)에게 보낸 편지에서 “[...]때는 늦여름이라 매미소리가 더욱 맑으니, 늘상 평상복을 입고 치건(緇巾)을 쓰고서 향산루(響山樓)에 편안히 앉아서 마음 내키는 대로 이 책들을 뒤적이노라면 즐거워서 근심이 잊혀지고 그 수택(手澤)을 만져보노라면 바로 그 사람을 보는 듯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조석으로 만난다는 것일 터입니다.([...]時當晚暑, 蟬聲益清, 每以便服緇巾, 燕坐于響山樓中, 隨意?閱, 樂而忘憂, 撫其手澤, 如見伊人, 是所謂朝暮遇也.)”(이상구 2023 참조)라고 하여 매미 소리를 특별히 선비의 맑은 덕과 먼 곳의 선비 벗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상기시키는 매개로 표현하고 있다.

실학자 이덕무는 매미와 굴을 자신의 당호 ‘선굴당(蟬橋堂)’로 삼았으

며, 매미가 상징하는 맑은 품성을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로 표방하였다. 이덕무는 『아정유고(雅亭遺稿) 2』 중 「11월14일 술에 취해」 제 1수에서 “내 마음 깨끗한 매미, 향기로운 굴 같으니/나머지 번다한 일 나는 이미 잊었노라[...].”라고 하여 매미를 맑고 깨끗한 군자의 성품에 비유하며 매미처럼 맑고 고매한 선비의 마음을 추구하는 자기 수양을 보여준다.



그림1 김인관. <유선도>

조선시대 시문에서뿐만 아니라 그림에서도 매미는 단순히 자연물의 묘사에 그치지 않고 선비의 정신을 상징하기도 한다. 17세기 문인 김인관이 그린 <화훼초충화권축(花卉草蟲畫卷軸)>의 12폭 그림 중 세 번째 그림인 <유선도(柳蟬圖)>(지본담채, 115×17cm)에서 가로로 긴 화면 오른쪽 아래 버드나무 등걸에서 왼쪽 위 대각선으로 뻗은 가지에서 늘어진 실가지의 버들잎 위에 살포시 앉아 있는 매미를 볼 수 있다. 열게 채색되어 있는 실가지 버들잎 위에 앉은 검은색 몸통과 투명한 날개의 매미의 모습에서 높은 버드나무의 매미소리라는 의미의 문학적 표현 ‘고류선성高柳蟬聲’의 영감이 느껴진다.

조선시대 시문에서뿐만 아니라 그림에서도 매미는 단순히 자연물의 묘사에 그치지 않고 선비의 정신을 상징하기도 한다. 17세기 문인 김인관이 그린 <화훼초충화권축(花



그림2 정선. <송림한선>

조선후기 진경산수화가 정선은 <송림한선(松林寒蟬)>(1742, 견본담채, 29.5×21.3cm, 간송미술관 소장)에서 화면 전체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소나무 한 가지와 그 위에 앉은 매미 한 마리만 남기고 담백하게 여백을 비워두고 있다. 화면 왼쪽 위편에서 오른쪽 대각선 아래로 늘어진 소나무 잔가지에 앉은 매미는 더듬이, 눈동자 안의 점, 다리, 등의 무늬와 몸통의 주름, 날개의 무늬까지 아주 섬세

하고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매미가 앉은 소나무 가지는 윗가지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멋스러운 마디의 꺾임과 함께 점점 가늘어지고 있으며, 매미를 사이에 두고 끊어진 듯 이어진 획에서 멋과 여유, 간힘 없는 여백과 자유로움이 느껴진다. 정선은 이 작품에서 군자의 절개를 상징하는 소나무의 가지를 그리고 그 위에 앉은 선비의 상징이 되는 매미를 그림 중심에 크게 강조함으로써 화가 자신의 내면 감정과 선비적인 포부를 담아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3 심사정. <유사명선>

심사정도 매미를 소재로 한 그림을 여러 작품 남겼다. 그는 증조부 때까지 명문이었으나 조부 때 집안이 몰락하여 과거로 뜻을 펼칠 꿈을 접고 평생 그림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자신의 신념과 뜻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심사정의 매미 그림 중 <유사명선(柳查鳴蟬)>(지본담채, 28×22.2cm, 간송미술관 소장)은 왼편 아래서 오른쪽 위 사선으로 뻗은 버드나무 등걸에 앉은 매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매미가 앉은 버드나무 등걸은 끝이 뚝 끊어져 있는데, 메마른 나무 등걸 옆으로 가는 가지가 뻗어 올라가고 있으며 연한 버들잎 새순이 돋아나 있어 꺾인 가지에서도 새 생명이 솟아나는 것에서 희망이 느껴진다. 심사정은 버드나무 등걸에 앉은 매미의 모습에 운명의 시련 속에서도 묵묵히 군자의 뜻을 간직하고자 하는 신념을 담아내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매미는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글이나 그림의 소재로 많이 등장하였고 왕과 관료들의 모자에도 반영되어 선비와 군자의 덕을 상기시키는 대표적인 상징 중 하나가 되었다.

2. 프로방스에서의 매미의 문화적 상징 : 행복과 행운

프로방스에서 매미는 라벤더나 미모사, 소나무와 올리브 나무, 지중해 쪽빛바다와 태양과 함께 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 중 하나이다. 매미는 프로방스 지방의 대표 마스코트이자 많은 일조량과 천혜의 자연으로 누리게 된 여유로운 삶과 웰빙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6월말부터 9월 중순까지 더운 여름철 프로방스에서 친숙하게 들리는 매미 소리는 행운과 행복한 삶을 기념한다.

프로방스에서는 매미가 풍요롭고 축복받은 자연을 누리는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된 이유가 전설로 전해져오기도 한다. 프로방스의 한 전설에 의하면 매미가 이 지방 사람들의 오후 낮잠을 줄여주기 위해 보내졌다(<https://provence-alpes-cotedazur.com>). 전설에 따르면 옛날 두 천사가 한여름 불볕더위 속에 하늘에서 내려와 프로방스 지방에 바캉스를 보내려고 도착하였는데, 거리는 텅텅 비어 있고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데다 정원과 건물은 관리도 안 되어 있어 궁금하여 지역 교회 신부를 찾아 갔다 한다. 그런데 신부가 교회 뒤 올리브 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고 있어 천사들이 신부를 흔들어 깨워 사정을 물었더니 신부는 프로방스가 엄청난 태양의 축복을 받다보니 오후까지 일 할 필요가 없어서 사람들이 낮잠을 잔다고 설명한다. 낮잠에서 깨고 나면 저녁이 되고, 저녁을 먹고 나면 너무 늦어 일을 못한다는 것이다. 천사들은 곧장 하늘로 가서 이 사실을 하나님께 고자질하였고, 하나님은 이에 황금빛 날개를 가진 작은 생물을 내려 보내 여름에 가장 높은 목소리로 시끄럽게 소리를 내게 해서 사람들이 낮잠을 못 자도록 하게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이 작은 생물인 매미가 내는 소리는 프로방스 사람들을 낮잠에서 깨우는커녕 그들의 자장가가 되어주었다고 한다. 그것은 프로방스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도 뜨거운 태양과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풍요를 누리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매미는 오히려 프로방스의 행복을 상징하는 마스코트가 된다. 이 전설에 대한 또 다른

결말에서는 천사들의 보고를 들은 신이 황금빛 날개를 가진 작은 매미들을 내려 보냈고, 매미들이 여름 동안 가장 높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일꾼들이 졸며 일하지 않는 것을 막았다고도 한다. 이러한 전설은 매미가 프로방스의 많은 일조량과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인한 풍요와 행복을 상기시키는 이미지로 인식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매미는 특히 프로방스 출신 프랑스 시인 프레데릭 미스트랄을 비롯한 여러 문인들의 지역 문화 부흥 운동 속에서 이 지역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미스트랄은 프랑스 공용어가 지방어를 흡수하면서 프로방스어가 쇠락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보고 평생 동안 프로방스 지방의 언어와 생활을 재건하는데 헌신하였다. 미스트랄은 1854년 시인 조셉 루마니유와 다른 프로방스 시인 5명과 함께 프로방스지방 언어 오크어와 오크어 문화를 수호하고 문화의 고유성을 발굴, 발전시키기 위해 펠리브리지를 창단한다⁴⁾. 펠리브리지는 문학운동이자 아카데미와 철학을 아우르는 삶 전반의 프로방스 문화 부흥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을 갖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미스트랄은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쏟고 20년의 긴 세월을 바쳐 전 2권의 오크어 학술사전인 『펠리브리지의 보석(Lou Tresor dóu Félibrige)』(1878)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은 현재까지 오크어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미스트랄은 오크어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오크어로 시를 썼으며, 평생 자신의 작품 속에 프로방스 지방의 아름다운 자연과 프로방스 사람들의 생활 풍습, 생각과 철학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평생 19세기의 프로방스 어문학 부흥에 헌신하며 자신의 삶과 글을 바친 미스트랄은 “프로방스 지방의 언어학자로서 자연의 풍경과 토착민들의 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한 그의 시작(詩作)에 나타난 신선한 독창성과 진정한 영감을

4) 펠리브리지의 창단 멤버 7명은 미스트랄과 조셉 루마니유(Joseph Roumanille, 1818-1891), 테오도르 오바넬(Théodore Aubanel, 1829-1886), 장 브뤼네(Jean Brunet, 1823-1894), 폴 비에라(Paul Biera, 1816-1861), 안셀름 마티유(Anselme Mathieu, 1828-1895), 알폰스 타반(Alphonse Tavan, 1833-1905)이다.

<http://www.felibrige.org/le-felibrige/vocabulaire/> 참조.

인정하며”라는 선정 사유와 함께 1904년 스페인의 극작가 호세 에체게라이(José Echegaray, 1832-1916)와 공동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미스트랄은 또한 프로방스 유산을 후대에 전하고자 아틀레 프로방스 민속 박물관(Lou museon arlaten)을 건립하였으며 노벨상 수상 상금도 박물관에 헌납한다. 죽어가는 프랑스어의 아름다움을 살리려는 미스트랄의 평생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프로방스어는 되살아나지는 못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



그림4 미스트랄의 문장

매미는 특히 프레데릭 미스트랄이 관여한 다양한 상징들에서 자주 발견된다. 미스트랄은 매미를 시적 화자로 하여 표현한 프로방스어 문장 “태양이 나를 노래하게 한다 (Lou soulèu me fai canta)”를 자신의 신조 (devise)로 삼고 이 문장을 자신의 개인 문장(紋章)에 새겨 넣었다. 미스트랄은 프로방스 지방의 자연에서 특징적인 매미를 이 지역 문화를 보존하고 홍보하기 위한 앙블렘(emblème)으로 삼아 브랜드화하고자 하였다. 펠리브리지에 가입한 회원인 멩트네르(mainteneur)들은 은색 페르방슈(pervenche)꽃 모양 배지를 착용하고, 문학적 공로를 인정받은 회원 중 일부 문예장이나 작품장들은 은색 매미 배지를 착용하였으며, 50명의 오크어 보존 운동 연맹 간부인 마조랄(majoral)로 지정된 이들은 금색 매미 배지를 소지하였다(<http://www.felibrige.org/le-felibrige/vocabulaire/>).

1864년 에르네스트 에베르(Ernest Hébert, 1817-1908)가 그린 미스트랄의 연필 초상화에서 미스트랄의 재킷 옷깃에 매미가 그려져 있으며, 메달, 흉상, 동상 등 많은 예술 작품이 매미를 미스트랄의 모습과 연관시키고 있다.

미스트랄의 작품 속에서 매미와 관련된 몇몇 예를 살펴보면, 그의 장편 서사시집 『미레유(Mirèio)』(1848) 중 첫 번째 장의 노래에서 직접 매미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프로방스 지방에서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매미의 문화적 상징이 녹아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다.

Ah! de moun tèms ère un cantaire,
Alor faguè lou panieraire
Ilai aro, que voulès? li mirau soun creba
("아, 내 젊은 시절에는 내가 노래하는 사람이었지."
광주리 만드는 사람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찌겠소? 거울들이 깨져버렸으니.")

『미레유』는 시인이 살았던 시대와 지역을 배경으로 장편 서사시로 부유한 농부의 딸과 가난한 딸이 가난한 광주리 제조공의 아들과 사랑하는 사이이지만 부모의 반대로 사랑이 좌절되어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레유』 서사시 첫 번째 장의 노래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이 젊은 시절에는 노래하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거울이 깨져버렸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미스트랄은 '거울이 죽었다.'라는 표현에 주를 달아 프로방스에서 매미의 날개 아래 두 개의 막을 미로(거울)이라고 부른다고 보충설명을 하고 있다. 이 장면에서 화자 광주리 만드는 사람은 자신이 왕년에는 (매미처럼)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와 같았지만 (매미의 소리 울림막인 거울이 죽어버렸으니 매미가 더 이상 노래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비유를 들어 과거의 아름다움이나 이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이 하는 일이 쇠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서 화자가 삶의 성취를 매미의 생태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에서 매미가 프로방스 특유의 문화적 상징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미레유』의 세 번째 장에도 매미가 인간 행동을 묘사하는 비유로 등장한다.

E coiune quand d'uno cigalo
Brusis la cansoun estivalo
En Cor tóuti reprenon talo
Li chatouno au refrin partien tóutis en Cor.

(여름날 매미 한 마리가
노래를 시작하면,
다른 모든 매미들이 합창하듯 화답하듯이,
젊은 소녀들 또한 후렴을 따라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다.)

이 장면에서 화자는 한 마리 매미가 울기 시작하면 모든 매미들이 울듯이 한 소녀가 노래를 하면 다른 모든 소녀들도 후렴처럼 같이 노래를 부른다고 하여 소녀들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풍습을 자연의 현상인 매미의 소리에 비유한다.

미스트랄은 자신의 문학에 프로방스의 자연과 토속문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는데, 그의 『황금의 섬(Lis Isclo d'or)』(1876)에 나오는 시 「8월의 아름다움(La Bello d'Avoust)」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후렴구 “Roussignoulet, cigalo, teisas-vous !/Ausès lou cant de la Bello d'Avoust(작은 피꼬리들, 매미들아, 조용히 하라!/8월의 아름다움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라)”에서도 매미는 작은 피꼬리들과 프로방스의 여름철 자연풍경을 상기시키는 시적 매개로 표현되고 있다.

장 리카르(Jean Ricard, 1848-1921)의 『프로방스의 시들 : 매미들(Poèmes de Provence : Les cigales)』(1884) 시집에서는 모든 시들의 주제가 매미로 수렴된다. 아래는 이 시집에 실린 시 「매미들 II - 매미(Les cigales II - La cigale)」(Jean Ricard 1884:194)이다.

Je suis la noble insecte insouciant qui chante,
Au solstice d'été, dès l'aurore éclatante,
Dans les pins odorants, mon chant toujours pareil
Comme le cours égal des ans et du soleil.
De l'été rayonnant et chaud je suis le Verbe,
Et quand, las d'antasser la gerbe sur la berbe,
Les moissonneurs, couchés sous l'ombrages attiédi,
Dorment en haletant des ardeurs de midi,
Alors, plus que jamais, je dis, joueuse et libre,

La strophe à double écho dont tout mon être vibre,
 Et tandis que plus rien ne bouge aux alentours,
 Je palpité et ej fais résonner mes tambours ;
 La lumière triomphe, et, dans la plaine entière,
 On n'entend que mon cri, gaîté de la lumière.[...]

(나는 노래하며 아무 근심 없는 고귀한 곤충,
 여름의 한가운데, 찬란한 새벽부터
 향기로운 소나무들 속에서, 변함없는 내 노래는
 시간과 태양의 일정한 흐름과도 같도다.
 빛나고 뜨거운 여름의 목소리인 내가,
 밀을 몽쳐 쌓는 수확자들이 풀밭에 눕고,
 정오의 열기에 지쳐 헐떡이며 잠들 때,
 그 순간, 나는 더욱 활기차고 자유롭게
 내 온 존재로 울리는 이중 울림의 시구를 노래하네.
 주변이 고요히 멈춘 가운데,
 나는 두근거리며 나의 북소리를 울리노라.
 빛은 승리를 이루고, 드넓은 평야에는
 내 외침만이 울려 퍼지니, 그것은 빛의 즐거움이라.[...])

이 시에서 시인은 매미를 시적 화자로 삼아 한 여름에 노래하며 근심 없는 고귀한 곤충으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너무나 잘 알려진 이솝 우화나 라퐁텐느의 우화에서 매미가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하는 개미에 대비되게 한가롭게 놀며 노래를 부르며 겨울을 대비하지 않다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소개되어 일반적으로 개미는 성실함의 상징으로, 매미는 게으름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장 리카르는 매미의 생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여 매미에 대한 기존 인식에 전환을 가져온다. 그의 시집의 또 다른 매미 시 「매미들 XVI(Les cigalesXVI)」(Jean Ricard 1884:213)에서 시인은 매미가 땅속에서 오랜 세월 유충으로 보내는 시간들을 ‘부지런하고 고독하게 사랑의 노래들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묘사하여 매미의 부지런함의 미덕을 드러낸다.

La fourmi dit à la cigale :
“Quand cesseras-tu ta chanson,
O paresseuse sans égale,
Et que ne fais-tu pas ta moisson ?
Vois tout ce qu’en mon trou j’emporte;
Viens avec moi, tu me verras
Enfouir mes bons grains, de sorte
Que sous terre ils ne germent pas.”

La cigale lui dit : “Sous terre,
J’ai vécu longtemps loin du jour :
Laborieuse et solitaire,
Je préparais mon chant d’amour,
J’appris le travail de la sève,
Les secrets du sillon troublé,
Et je préfère un grain qui lève
A tes greniers où meurt ton blé.”

(개미가 매미에게 말했다:
“언제쯤 너의 노래를 멈출 것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자여.
왜 너는 추수하지 않는 것이냐?
보아라, 내가 구멍으로 운반하는 모든 것들을.
나와 함께 오라, 내가 어떻게
좋은 곡식을 땅에 묻어
썩이 나지 않게 하는지 보여주마.”

매미가 대답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땅속에서
햇빛 없는 곳에서 살았노라.
부지런하고 고독하게
사랑의 노래를 준비하며.
나는 수액의 흐름을 배우고

뒤흔들린 고랑의 비밀을 알았네.
그리고 나는 네 창고에서 썩어가는 밀보다
싹을 틔우는 한 알의 곡식을 더 좋아하네.”)

이 시에서는 매미의 생태를 성충으로 지내는 짧은 기간에 국한해서 보지 않고 매미가 성충이 되기 위해 기다리는 오랜 세월을 어둠 속에서 고독하고 부지런하게 자신의 ‘싹’을 틔우기 위해 치열하게 준비하는 기간으로 해석한다.

이 시집의 마지막 에필로그(Jean Ricard 1884:230)에서 시인은 자신이 지은 매미 시들을 매미에 세워준 기념비로 표현하며 이들 기념비에 대해 매미가 시인에 해주는 말의 형식을 빌려 매미의 불멸성과 그러한 매미를 찬양하는 시인의 시의 불멸성을 말한다.

XXVIII

Exegi monumentum...
Les cigales m'ont dit : “Tu nous chantes, c'est bien.
Le léger galoubet auprès de nous n'est rien,
Ni le gai tambourin, cet amoureux qui tremble ;
Et tous les deux mêlant leurs musiques ensemble
Ne valent pas l'insecte au soleil résonnant.
Des choses changeront qui plaisent maintenant,
Et tes vers passeront aussi qui parlent d'elles ;
Mais nous, poète ami, nous sommes immortelles,
Et ton chant fait pour nous, à notre chant pareil,
Doit vivre aussi longtemps que nous et le soleil.”

(XXVIII

나는 기념비를 세웠노라...
매미들이 내게 말했다:
“네가 우리를 노래하니, 참으로 훌륭하구나.
하지만 가벼운 갈루베(피리)도 우리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가슴 떨리는 사랑의 복소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둘이 함께 어우러져 음악을 만들어도,
햇빛 아래 울려 퍼지는 곤충의 소리만 못하다.
지금 즐거움을 주는 것들은 언젠가 변할 것이고,
네가 그것들을 노래한 시도 결국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시인 친구여, 불멸이나라.
그리고 우리를 위한 너의 노래 또한 우리 노래와 같아,
우리와 태양이 존재하는 한 오래오래 살아남으리라.”)

이 시에서 화자가 세워준 매미 시 기념비에 대해 매미는 시인이 모든 음악도, 다른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노래한 시들은 사라지지만 햇빛 아래 울려 퍼지는 곤충(매미)의 소리는 영원하며 이들 매미를 노래한 시인의 시도 불멸하리라고 한다. 시인은 여기서 매미의 노래가 다른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나 그것을 노래하는 시들보다 오래 살아남는 불멸의 존재라 칭하며, 그러한 불멸의 존재인 매미를 노래하는 시인의 매미 시 또한 매미와 함께 살아남을 것을 예언한다.

에르네스트 고베르(Ernest Gaubert)와 쥘 브랑(Jules Veran)의 『프로방스적 사랑 시선집-발췌 모음집(Anthologie de l'Amour Provençal- Morceaux choisis)』(1909)에서 프로방스를 대표하는 시인들에 대한 소개와 시인들의 대표 시 몇 수를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시선집에서 실린 시의 작가들의 생애나 작품 세계에 대해 설명 부분에서도 매미는 종종 이들 시인들에 대한 소개를 돕는 비유적인 묘사에 등장한다. 이 지역 시인의 삶이나 개성을 매미에 빗대어 소개하고 있는 이 시선집의 시적 이미지들은 프로방스 고유의 문학적, 문화적 특색을 보여준다. 이 시선집에서 안토냉 마프르(Antonin Maffre, 1852-1924)에 대한 소개에서 미스트랄이 이 시인에 대해 표현한 것을 프로방스어로 인용하고 있는데, 미스트랄은 마프르에 대해 “Maffre, dins lou nis de Maffre Ermengand/Toustems an canta cigalo o cigau,/Longomai, amic, la cigalo tiéune/A courdadamen canto emé la miéuno.(마프르, 에르망강의 둥지 속에서/언

제나 매미 혹은 매미 소리가 울린다네./오래도록, 친구여, 당신의 매미가 /나의 매미와 함께 용감히 노래하길.)”(Gaubert, E. & Veran, J. 1909:81)라고 하여 매미를 미스트랄 자신과 마프르를 연결시키는 매개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이 시선집에서 시인 안셀름 마티유(Anselme Mathieu, 1828-1895)의 생애를 설명하며 “Né, en 1828, à Châteauneuf-du-Pape, coquet village, aux vins fameux, où les Papes d'Avignon, à la belle saison, aimaient à séjourner; mort en 1895, après une vie plus longue, assurément, que celle des cigales, mais également insouciant, également tout entière passée à chanter.(1828년 아비뇽의 교황이 여름을 보내던 유명한 와인이 있는 아름다운 마을 샤토네프 뒤 파프에서 태어났습니다. 매미보다 더 긴 삶을 살았지만 매미만큼이나 평온하고 온전히 노래에 몰두한 채 1895년에 사망했습니다.)”(Gaubert, E. & Veran, J. 1909:88)라고 하여 시인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매미보다 더 긴 삶을 살았지만 매미만큼이나 평온하고 노래에 몰두한 채’라고 하여 시인의 삶을 매미의 생태에 비유하고 있다.



그림6 *La cigale* (1887) 표지

가지에 앉은 매미의 이미지나 매미에 감정이입한 미스트랄의 문장은 시

프로방스 연합(réunion de Provence) 탄생 400년 기념으로 간행된 잡지 『매미 (*La cigale*)』(1887) 표지에는 나뭇가지 위에 앉은 매미가 그려져 있고 매미가 가지에 앉은 부분 주위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듯 전체 표지의 황토색 톤보다 훨씬 밝고 환한 색상의 원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 이 밝은 톤으로 된 매미가 앉은 가지 부분에는 미스트랄의 신조 문장(‘Lou souleu me fa canta’)이 적혀 있다. 『매미』 잡지 표지에서 환하게 조명하고 있는

인의 지역어와 향토 문화 활성화를 위한 위대한 마음을 기리고 이어가고자 한다.



그림7 시카르, 매미 세라믹(1895)

또한 프로방스 지방의 세라믹 매미도 미스트랄의 프로방스 정신의 유산을 이어가는 데 동참하는 한 예가 된다. 세라믹 매미는 프로방스 지방을 대표하는 유명한 마스코트인데 그 기원은 세라믹 전공자였던 루이 시카르가 만든 세라믹 매미를 만든 것에서 출발한다. 1895년

마르세이유의 타일 공장인 툴러리 제너럴 소사이어티(la Société générale des Tuileries de Marseille)에서 프로방스 지방을 상징하는 기념품 제작을 부탁 받은 루이 시카르는 프로방스 언어와 문학, 문화를 선양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프레데리크 미스트랄과 그의 동지들이 만든 펠리브리지의 상징인 매미에서 영감을 받아 올리브 가지에 앉은 매미 세라믹 마스코트를 만들었다.

그는 매미가 앉은 올리브 나뭇가지에는 프레데리크 미스트랄의 신조를 인용하여 프로방스 정신을 상기시키고 보존하고 옛 오코어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에 동참한다. 그가 만든 매미 세라믹은 매우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되자 다른 많은 모방작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시카르는 이후 매미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공방에서 만든 다양한 물건 위에 매미가 앉아 있는 디자인을 창안해 다양한 버전의 상품들을 만들었다. 시카르는 벽걸이 꽃병이 유행하던 당시 매미 꽃병을 만들어 1960년 유행이 끝나기 전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1990년대에 세라믹 매미 꽃병의 인기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였다(<https://provence-alpes-cotedazur.com>). 루이 시카르가 최초로 제작한 이후 한 세기가 넘도록 세라믹 매미는 전통적으로 프로방스 지방에서 행운의 마스코트로 여겨져 현관이나 실내 벽에 장식용으로 걸려 있으며 프로방스 지방을 찾는 많은 여행객들도 프로방스 지방의 행복과 풍요의 행운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는 풍습이 만들어졌다.

III. 결론

이 연구에서 한국과 프로방스에서 매미의 문화적 상징에 대한 비교를 통해 동일한 대상이 서로 다른 문화에서 지니게 되는 문화의 상징성과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매미가 선비의 덕을 지닌 것으로 묘사한 중국 진나라 육운의 시에서 시작하여 한국에서는 매미가 예로부터 선비정신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조선시대 매미는 선비정신과 청백리의 상징으로 문학, 그림, 관공 등 다양한 문화 현상 속에 녹아들었다. 반면 프로방스 지방에서 매미는 뜨거운 여름철의 자연적인 현상을 상기시키며 프로방스 지방의 천혜의 자연의 지복과 행운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 지역에서의 매미 문화적 상징은 작가 프레데릭 미스트랄과 프로방스 출신 여러 문인들, 그리고 세라믹 작가 루이 시카르를 통해 특히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매미는 프로방스의 풍부한 태양빛과 자연환경과 연결되며, 이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지역 문화와 정신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프로방스에서 매미의 문화적 상징을 비교해봄으로써 동일한 대상이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각 문화 특유의 의미와 상징성을 형성해나가고, 문학과 예술을 통해 다시 리텔링되는 과정에서 문화적인 의미와 영향력을 얻게 됨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화상대성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적 상상력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황견 엮음, 이장우, 우재호, 박세욱 옮김(2003), 『고문진보 후집』, 을유문화사.
중국역대 인명사전(2010), 임중욱, 이회출판사, 네이버 지식백과 인용,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38179&cid=62066&categoryId=62066> (검색일: 2023.1.10.)
- 이상구(2023), <고전명구>, ‘매미소리를 들으며’, 한국고전번역원,
<https://www.itkc.or.kr/bbs/boardView.do?id=75&bIdx=31589&page=2&menuId=127&bc=0>(검색일: 2023.12.16.)
- 정동화(2016.8.18.), <고전산책>, 한시감상, ‘매미에 대한 단상’(이행, 『용재집(容齋集)』, 권6, 「매미[蟬]」), 한국고전번역원,
<https://www.itkc.or.kr/bbs/boardView.do?id=75&bIdx=16652&page=1&menuId=0&bc=0> (검색일: 2023.12.10.)
- 정민(2020.7.16.), 「世說新語(580)-고류선성(高柳蟬聲)」,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6/202007160004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검색일: 2025.1.10.)
- 조해훈(2017), 『18세기 경주권 題詠 漢詩 연구』, 신라대 박사학위 논문.
실학박물관(2016), <실학박물관 경기청백리 특별전>(2016.05.23.-2016.09.18.),
<https://silhak.ggcf.kr/exhibitions/18>(검색일: 2025.1.10.)
- Gaubert, E. & Veran, J.(1909), Anthologie de l’Amour Provençal -
Morceaux choisis, accompagnés de Notices biographiques et d’un
Essai de Bibliographie, préface de J. Anglade, Paris, Mercure de
France, <https://biblio.cieldoc.com/libre/integral/libr0842.pdf> (검색
일: 2023.10.16.)
- Haute Provence info(2023.8.5.), “Anthologie de la Cigale : la cigale si
chère à Frédéric Mistral”,
<https://www.hauteprovenceinfo.com/actualite-41279-anthologie-de>

-la-cigale-la-cigale-si-chere-a-frederic-mistral(검색일: 2023.12.16.)

Lestz, M.(2016.7.7.), “The Cicada (Cigale) of Provence”,

<https://provence-alpes-cotedazur.com/en/provence/get-inspired/lifestyle/the-provencal-cicada/>(검색일: 2023.12.6.)

Mistral, F.(1980(1848)), Mirèio(Mireille), texte provençal-français par Frédéric Mistral, éditeur, M. Petit, Raphèle-lès-Alres,

<http://catalogue.bnf.fr/ark:/12148/cb12162740h>(검색일: 2023.10.11.)

Ricard, J.(1884), Poèmes de Provence : Les cigales, Paris, G. Charpentier.

<https://provence-alpes-cotedazur.com/en/provence/get-inspired/lifestyle/the-provencal-cicada/>(검색일: 2023.12.1.)

<http://www.felibrige.org/le-felibrige/vocabulaire/>(검색일: 2023.12.1.)

❖ ABSTRACT

Cultural Symbolism of Cicadas in Korea and Provence

Hwang, Hyeyoung
Seowon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d cultural symbolism of cicadas in Korea and the Provence. In Korea, cicadas have long symbolized integrity and scholar's spirit, especially during the Joseon Dynasty, when cicada-shaped wing motifs were used on official hats to represent incorruptible officials. In the Joseon era, cicadas symbolized the integrity and scholarly ideals of Confucian scholars, as seen in the poetry and writings of figures such as Lee Haeng, Lee Hwang, and Silhak scholars like Hong Dae-yong and Lee Deok-mu. Moreover, in paintings by artists like Kim In-gwan, Jeong Seon, and Sim Sa-jeong, cicadas were depicted not merely as natural elements, but as emblems of the noble spirit of scholars.

In Provence, cicadas symbolize nature, joy, and good fortune, reflecting the hot Provençal summer and the region's abundant natural beauty. Frédéric Mistral embraced cicada as a central symbol of Provençal identity, celebrating its cultural significance in his works. Similarly, Louis Sicard popularized cicadas through ceramics, creating iconic designs that connect cicadas with Provence's cultural and regional spirit.

This comparison shows how cicadas have been shaped into unique cultural symbols within distinct contexts, reinterpreted, and passed down through literature and art, highlighting the significance of cultural relativity, the imaginative power of humanities, and enduring influence

of symbolic traditions.

Keywords: Cicadas and the Scholar's Spirit, Cheongbaek-ri, Frédéric Mistral, Provençal Language, Louis Sicard, Cicada Ceramics

■ 논문투고일 : 2025. 01. 10

■ 심사완료일 : 2025. 02. 02

■ 게재확정일 : 2025. 02. 07

